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남 궁 미

서강대학교 / 학생

박 정 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학생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상담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상담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19년 6월 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중 성소수자와 관련된 총 84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대상, 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연도별 논문 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주제별 연구 동향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 연구가 31편(36.9%)으로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에 관한 연구가 17편(20.2%),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가 16편(19.0%)이었으며, 개관 연구가 7편(8.3%),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가 6편(7.1%), 척도개발 연구 5편(6.0%), 기타 2편(2.4%) 순이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다수의 연구가(84%)가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 방법의 경우 양적 연구가 전체 연구의 58.3%를 차지했으며 질적 연구(29.8%), 개관 연구(10.7%), 혼합 연구(1.2%) 순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LGBTQIA, 연구동향

[†] 교신저자 : 박정은, Department of Counselor Education and School Psychology,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ED191, 12494 University Blvd. Orlando, FL, USA, 32816
Tel : +1-407-823-2052, E-mail : adroitinsc@gmail.com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단일문화와 인종과 민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왔다(김영란, 2013). 그러나 지난 10년간 결혼 이주민 여성,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국적, 다인종의 사람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됐고, 그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김춘희, 손은령, 2014; 류승아, 2017).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 뿐 아니라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주류 구성원과 다른 문화를 가지는 소수자도 포함하는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상담자 역시 변화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강진령, 2005; 김춘희, 손은령, 2014; Lee, Suh, Yang, & Jang, 2012). 상담자가 국적, 성별, 연령, 성적지향, 종교,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의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내담자가 처해 있는 사회환경적 맥락이 내담자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내담자의 다양성 존중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주요 상담 및 심리 분야 학회의 윤리 강령에 포함되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학회, 2016;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한편, 한국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및 인식은 아직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교육받았던 단일 문화와 단일 민족

중심의 규범이나 신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 대한 거리감이나 배타적 태도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은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에는 다른 소수자 집단과는 다르게 성소수자를 ‘잘못된’ 혹은 ‘비정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치료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거나(김진이, 2017)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존재하며, 차별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류승아, 2017; 원숙연, 2017).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및 법제화 역시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미비하다(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정책연구회, 2016).

성소수자는 시스젠더(cisgender)¹⁾이자 이성애자인 사람을 제외한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b). 성적 지향성은 누군가에게 정서적(emotional), 성적(sexual)으로 끌리거나, 애정을 느끼는(romantic)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이 이성에게 향한다면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끌린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identify²⁾) 성별을 무엇이

1) 시스젠더(Cisgender)는 자신이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나 성별 표현과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a). 예를 들어,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고, 스스로도 여성이라고 느끼며 여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외모표현, 행동,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시스젠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Identify는 자신이 어떤 정체성임을 밝힐 때 사용

라고 느끼는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시스젠더의 경우에는 출생시 지정받은 성별(지정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만,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

Meyer(2013)는 사회가 소수자 집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로 설명하면서, 인종, 성적 지향, 성(gender) 등을 기준으로 할 때 다수 집단이 아닌 소수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차별, 편견, 폭력과 같은 소수자 스트레스가 우울증상, 약물 사용,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문제들을 야기하며, 소수자 집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신건강이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 이상의 의미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 상태를 뜻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Meyer(2013)의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비성소수자가 경험하지 않는 고유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묻는 결혼에 대한 질문, 남자친구, 여자친구 유무에 대한 일상의 질문(윤성욱, 성승연, 2011), 자신의 정체성이 학교나 직장에서 공개되거나, 부모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갖는 두려움(김유숙, 2016) 등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고유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 이처럼,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성소수자들

이 스트레스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들은 비성소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을 비율이 높거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김진이, 2017). 이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를 더 많이 보고했다(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김성연, 2013; 김형지, 김향숙, 201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또한,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부 개신교의 신자가 동성애자일 경우 자신이 가진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정, 유영권, 2004).

다문화상담 및 다문화상담 역량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심리학회 및 상담학회에서 모두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소수자에게 지지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200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b),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지침들을 숙지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자에게 다양한 자료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담학회의 분과인 ALGBTIC(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Intersex, Transgender Issues)에서는 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동영상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을 발간해 성소수자 이슈 및 성소수자 내담자 상담 실제와 관련된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하는 언어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정체화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맥에 따라 의역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담심리 및 상담 관련 대학원 교육에서는 상담전공생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다(CACREP, 2016; McDaniel et al., 2014). 따라서, 대부분의 상담심리 및 상담 관련 대학원 과정의 교육과정에는 다문화수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수업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권을 인식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양성, 성,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Sherry, Whilde, & Patton, 2005). 또한, 미국의 경우 상담 및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실습이나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만나는 비율이 높고, 자연스럽게 슈퍼비전 등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erry et al., 2005).

한편, 국내 상담자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상담역량과 관련된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날 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 및 접근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은 상담 전공 대학원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공춘옥 외, 2018; 우사라, 유성경, 2017).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상담자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가 병리적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과 별개로 상담자가 사회로부터 학습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서영석 외, 2007)는 점에서 교육 및 관련 정보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비록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다. 상담 분야의 주요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2018) 및 한국상담학회(2016) 모두 윤리강령에 상담심리사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내담자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상담자가 내담자의 복지증진과 윤리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적 상담 역량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미국의 상담역량 가이드라인을 번역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위한 상담 가이드라인(비온뒤무지개재단, 2019)이나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인 내담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심리학적 실천 가이드라인(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2018)이 번역되어 상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과 더불어 국내 심리·상담 분야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보면, 성소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 및 성소수자 상담 역량(서영석 외, 2007; 우사라, 유성경, 2017),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과정, 성소수자의 삶의 경험 및 다양한 장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진이, 2017; 백은정, 유영권, 2004; 윤성옥, 성승연, 2011), 성소수자 상담 실제와 경험(박수영 외, 2018)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지는데, 상담자들이 출판된 연구

물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여러 연구 문헌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상담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연구를 종합, 정리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성소수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하거나(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를 다룬 국외 연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김형지, 김향숙, 2018) 두 연구 모두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혜민 외(2014)가 진행한 개관연구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석대상 128편 중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101편에 이른다. 한편, 김형지와 김향숙(2018)의 연구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성적지향을 기준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퀘스처닝(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살 위험성이라는 한 가지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서 국외 논문을 개관하였다. 이혜민 외(2014)의 연구는 타 분야의 논문이 다수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 김형지와 김향숙(2018)의 연구는 국외 논문을 대상으로 했고 비교적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번 연구된 성소수자의 자살사고 및 자살 위험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국내 상담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다. 국내 상담 및 심리분야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 및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편의 선행연구가 지니는 함의 및 추후 연구 방향 제시는 아쉬움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주제의 논문이 처음으로 발간된 200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 성소수자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주제, 연구 방법, 연구대상 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 분야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주제 및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성소수자 중 어떤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 및 심리 분야의 국내 성소수자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최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해당 주제에 대한 현재의 연구 발달 수준 및 미비한 부분을 알려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조성호, 2003), 더 나아가서는 성소수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출판된 연구 중, 한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혜민 외(2014)의 연구에서 기존 문헌을 검색할 때 사용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하위 집단을 일컫는 용어들을 키워드로 사용하되, 의학용어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을 검색 및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논문 검색을 위해 PsychINFO와 PsyArticles DB에 접속하여 ‘Gay’, ‘Lesbian’, ‘Homosexual’, ‘Homosexuality’, ‘Bisexual’, ‘Bisexuality’, ‘Transgender’, ‘Transsexual’, ‘Transvestite’, ‘Cross-dresser’, ‘Hermaphrodite’, ‘Intersex’, ‘asexual’, ‘Sexual orientation’, ‘Sexual identity’, ‘Sexual inversion’, ‘Sexual minority’, ‘Gender identity disorder’, ‘Gender dysphoria’, ‘Gender nonconforming’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를 검색하였다. 한국 내의 성소수자나 한국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각 단어에 ‘Korea’와 ‘Korean’을 조합하였는데, 예를 들면 “Gay AND(Korea OR Korean)”처럼 검색 시 연산자를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iss.kstudy.com),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분석대상이 될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국내 논문 검색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동성애자’, ‘호모섹슈얼리티’, ‘남성동성애자’, ‘여성동성애자’,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퀘스처닝’, ‘무성애자’, ‘에이섹슈얼’,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퀴어’, ‘LGBT’, ‘성주체성장애’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셋째,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될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 논문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간된 학술지 논문 44편과 학위논문 40편을 합한 총 84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84편의 논문 모두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으로, 국외에서 출간된 논문 중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기준을 충족

하는 연구물이 없었다.

넷째, 문헌 선택의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 중 1인은 상담 전공 박사 수료생이며 다른 1인은 박사 재학생으로 두 연구자 모두 학회지에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등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평정 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될 연구를 선별하는 과정은 성소수자 관련된 선행 연구(이혜민 외, 2014; 김형지, 김향숙, 2018)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한국 성소수자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거나, 한국 성소수자가 주요 논의 대상이지만 의료, 법, 문학 등의 타 학문분야의 연구거나, 연구가 아닌 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 자료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제외 기준 3개 중, 2번째 기준(상담 및 심리학이 아닌 타 학문분야의 연구일 경우 분석대상 제외)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각 논문의 초록 및 내용을 검토했을 때 상담 및 심리학 관련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 비슷한 주제의 연구인데도 다른 분야의 학술지에 출판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출판된 연구물 중 그런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두 연구자는 상담 및 심리학 분야 외에서 출판된 연구물을 따로 분류한 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 연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상담(심리)과 관련 없는 타 분야에 출판된

연구물들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일부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을 확정한 후, 개관연구에서의 분류 준거 선정 절차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를(김은하, 박승민, 2011;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참고하여 분류 범주를 정하였다. 분류 범주는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연구주제 범주는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 동향(남순임, 박주영, 2017), 성소수자 건강 연구 동향(이혜민 외, 2014),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윤혜순, 2014)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유형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 분류는 성소수자의 자살위험성에 대한 개관 연구(김형지, 김향숙, 2018)와 성소수자의 건강 연구(이혜민 외, 2014)에 사용된 준거에 상담자 및 내담자 대상 연구 분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은 Creswell과 Poth(2016)가 제시한 연구방법의 분류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양적+질적) 연구의 3개 범주를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분류할 범주를 결정한 후, 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각 연구를 평정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각 논문

의 출판연도와 출판 형태 등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은 분석 대상 논문의 초록과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각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구 방법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각 연구자가 코딩한 내용을 두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면서 의견이 다른 코딩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였다. 넷째, 연구자들은 설정된 분류 범주들 중 추가하거나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야 하는 범주가 있는지를 논의한 이후 분류 범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결 과

발행연도별 논문 수

국내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2000년대 이전에는 관련 연구가 없었으며, 2000년 한국 상담선교연구원의 학술지 논문(찰스웨너, 2000)을 시작으로 2002년 2편의 학술지 논문(공성욱 외, 2002; 안이환, 2002)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81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류 범주의 세부사항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 구분
연구주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 성소수자 이해 연구, 성소수자 정체성과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계,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 척도개발연구, 개관연구, 기타
연구대상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 일반인(비성소수자, 비성소수자&성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여성 동성애자, 동성애자&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연구방법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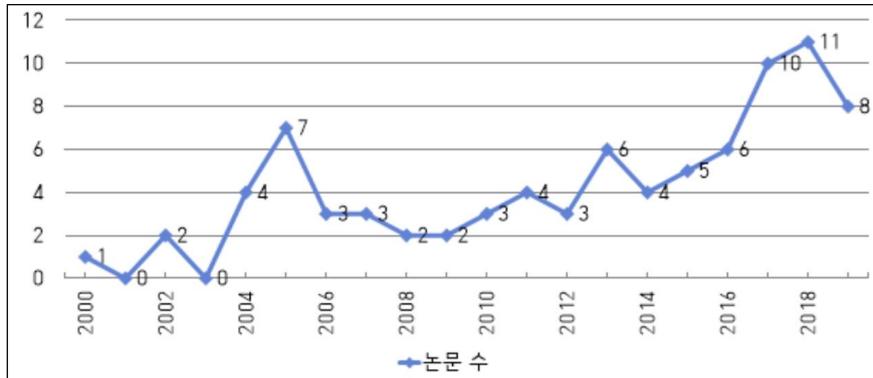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총 발행 논문 수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발행 추이를 5개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편,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7편,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편,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0편이 발행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양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년간 학술지 논문은 18편이 발행되었고, 학위논문은 6편에 그쳤던 반면,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학술지 논문은 26편, 학위논문은 34편이 발행되어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탐색한 연구가 31편(36.9%)으로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 연구가 17편(20.2%),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 16편(19.0%), 성소수자에 대한 개관 연구가 7편(8.3%),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 6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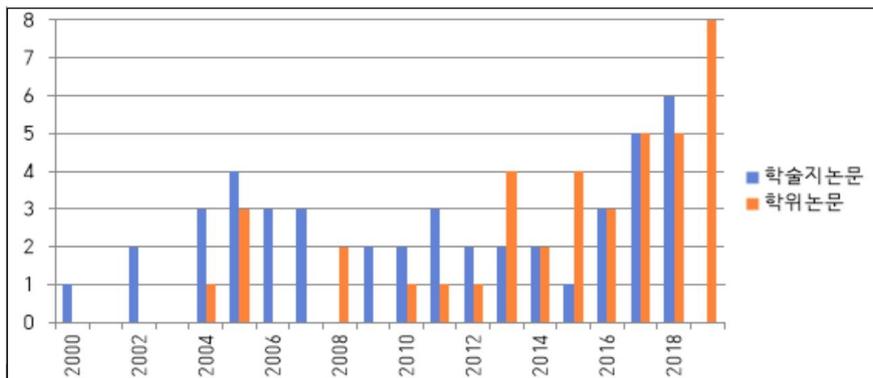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학술지 및 학위논문 구분 발행 논문 수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저자(년도)	
우울, 불안, 자살위험, 스트레스 (8)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강병철(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심리사회적 특성	강병철(2006)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강병철(2007)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김성연(2013)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적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과 자살 생각을 중심으로	김유니(2005)	
		동성애자의 자살 관련 행동의 특성	배진화(2008)	
		남성 동성애자의 부정적 압목적 태도가 심리적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임수연(2017)	
		아동기 성폭력경험, 자아존중감, 성적체성노출 및 사회적 지지가 게이와 레즈비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201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2004)	
		성소수자의 소수자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박수진(2018)	
우울, 불안, 자살시도, 스트레스: 소수자스트레스와의 관계 (7)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박수현(2010)	
		소수자 스트레스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손주연(2019)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호림(2015)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윤수진(2019)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 연구 (31편)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自殺思考)간의 관계	허정은(2004)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병철(2011)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공성욱(2002)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김진이(2017)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7)		사회적 낙인이 이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민재욱(2016)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박의주(2012)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적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여기동(2006)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이성원(2017)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3)		성적 소수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소수자 스트레스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유숙(2016)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미란(2019)
			여성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장미태(2019)
기타 (6)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형지(2015)	
		남성 동성애자의 감각추구 성향, 수동공격, 자기수용, 외로움 및 관계증독 간의 관계	이동호(2015)	
		여중생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이승화(2013)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이영식(2005)	
		성소수자(LGBQ)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허지선(2015)	
	성소수자의 성인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연구	신동열(2010)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계속 1)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차자(년도)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 (17편)	성정체성 형성 및 발달 (9)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강병철(2012)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관한 생애사 연구	김나나(2018)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김준우(2008)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지수(2018)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백은정(2004)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윤성옥(2011)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지은(2005)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정현영(2018)
		커밍아웃을 통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연경(2014)
	삶의 경험 (5)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의 삶의 경험 연구	강선경(2013)
		동성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성적자기주장, 폭력허용도와의 관계	김수연(2018)
		국내 20대 레즈비언들의 연애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영혜(2013)
		대학생 성소수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일 연구	박장미(2019)
	상담 (2)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주재홍(2017)
		성소수자(LGB)의 상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체성을 중심으로	공준옥(2018)
	성소수자가 경험한 차별 (1)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박수영(2018)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 연구 (16편)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 (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상담자의 동성애상담유능감과 동성애 내담자의 인상형성의 관계: 사회문제옹호의 매개효과			김미란(2018)
아동청소년 상담자의 권위주의 성격 특성에 따른 동성애 내담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 인식			김종선(2017)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박정은(2013)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서영석(200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양희선(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우사라(2017)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민정(2015)
성소수자 상담 실제 및 사례 (5)		초심 상담자의 다문화수용성과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의 관계	홍예진(2019)
		케이 내담자의 료사와 주체통각검사 반응	안이환(2002)
		대학생 동성애자의 불안 감소와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사례 연구	연성훈(2019)
		사이버상담으로 호소된 남자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이영선(2010)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의 사회적 불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장현숙(2011)
성소수자 상담 역량 및 훈련 (3)		성소수자 미혼모의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그림책 만들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정은(2016)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김경호(2009)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박준호(2014)
	여성주의 상담자와 타젠더 내담자의 만남: 폭력과 트라우마 사례를 중심으로	정푸름(2017)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류 (계속 2)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1저자(년도)
개관 연구 (7편)	기독교 관점에서 성소수자 바라보기 (4)	동성애 유발요인과 기독교상당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김원평(2013)
		청소년의 성 정체성 문제와 기독교상당 방안	노철우(2009)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신재승(2005)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	전형준(2017)
	성정체성 (2)	성정체성의 복합성: 레즈비언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김미영(2007)
		청소년기의 동성애 정체감의 위험	찰스웨너(2000)
	성소수자와 자살위험 (1)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형지(2018)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 연구 (6편)		성 소수자 바라보기: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김선영(2014)
		중·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김은하(201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서영석(200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 의 상관연구	윤성현(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윤이현(2016)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이영선(2012)
척도개발 연구 (5편)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 관련 척도 (3)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타당화	박도담(2017)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이솔희(2019)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임민경(2014)
	동성애혐오 (1)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김용희(2005)
	성소수자의 정체성 (1)	한국판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장지윤(2018)
기타 (2편)	정신병리적 특징 (2)	동성애와 성 정체감 장애의 정신병리 특성 비교: 병사용 진단서 발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박기환(2005)
		한국 남성 성주체성 장애 환자의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정신병리적 특징	임수진(2004)

(7.1%), 척도개발 연구 5편(6.0%), 기타 2편 (2.4%)이었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 및 관련 변인을 탐색한 연구로 총 31편이다. 먼저 우울, 불안, 자살위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15편이었다. 15편 중 다수의 연구가 성소수자 집단의 우울, 불안, 자살위험 수준 측정 및 확인을 주제로 이루어졌다(김성연, 2013; 배진화, 2008; 임수연, 2017). 또한, 소수자 스트레스와 부정

적 정신건강 변인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박수진, 2018; 손주연, 2019), 우울, 불안과의 관계(이호림, 2015),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허정은, 2004),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윤수진, 2019) 등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성소수자 집단은 비성소수자에 비해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성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변인이 아닌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펴본 연구(여기동, 이미형, 2006),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성원, 2017) 등이 있다.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김유숙, 2016), 친사회적 행동(박미란, 2019), 심리사회적 적응(장미래, 2019) 등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성소수자의 정서 및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사회적지지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소수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연구가 총 17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주제로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 및 발달, 성소수자가 경험한 차별, 관계 및 대학 생활 등 다양한 장면에서의 삶의 경험, 성소수자의 상담 경험 등의 연구가 있었다. 정체성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와 성소수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박지수(2018)는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 발달을, 윤성욱과 성승연(2011)은 여성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준우(2008)는 트랜스젠더가 젠더 정체성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소수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정체성 발달을 살펴본 연구 중 2편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강병철, 하경희, 2012; 정현영, 2018). 한편, 김나나(2018)는 종교가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사적 방법으로 탐색하고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종교적 낙인이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과된 사회적 낙인 및 부정적 시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거나 부정하는 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내면의 갈등, 혼란 등을 경험하고 다루면서 점차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체성 확립 과정은 각 개인이 속한 맥락(가족의 지지, 연령,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연애, 대학 생활 등 다양한 일상 장면에서의 성소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영혜(2013)는 레즈비언의 연애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색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귀는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 등이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박장미(2019) 역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소수자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소수자 상담모델 및 상담역량을 주

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총 16편으로 세부 주제로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 상담 역량 및 훈련, 성소수자 상담 실제 및 사례 등이 있었다.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동성애자 내담자를 중심으로 상담자의 태도를 다룬 연구와 그런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상담자의 태도를 다룬 연구 중 서영석 외(2007)는 동성애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상담자의 태도를 살펴보고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이민정(2015)은 기독교 상담사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탐색했다.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 우사라와 유성경(2017)은 상담자의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홍예진(2019)은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 김미란(2018)은 내담자에 대한 인상, 박정은(2013)은 정보처리력, 김종선(2017)은 상담 유능감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국내 상담자는 동성애자에 대해 일반인 집단(비상담자)에 대해 특별히 더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으나 공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소수자 상담 유능감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성소수자를 상담할 때 효과적일 수 있는 접근방식이나 상담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연구로는 청소년 동성애자를 상담하기 위한 상담 방안(김경호, 2009), 대학생 동성애자 상담 모델(박준호, 2014) 등이 있었다. 상담실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소수자 내담

자를 미술치료를 통해 상담했던 사례(연성흠, 2019; 장현숙, 2011; 조정은, 2016) 및 사이버 상담을 통해 청소년 동성애자를 상담했던 상담 사례(이영선, 김소라, 2010)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이성애, 시스젠더 중심주의적인 사회가 성소수자 내담자는 물론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가 인식하고, 소수자 스트레스를 대처해낼 수 있는 내담자의 강점 및 자원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성소수자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관 연구는 총 7편으로, 그 중 4편은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길원평, 류혜옥, 2013; 노철우, 2010; 신재승, 2005; 전형준, 강윤경, 2017). 그 외에, 김형지와 김향숙(2018)은 성소수자 집단에서의 자살 위험성 변인을 중심으로 국외연구를 개관했고, 김미영(2007)은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레즈비언의 정체성 발달 및 확립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및 접근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다섯째,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편견이나 혐오적 수준 등의 인식 실태를 보고사했던 연구는 총 6편으로 대부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김선영 2014; 서영석, 이정림, 강재희, 차주환, 2007;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서영석 외(2007)와 윤이현 외(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를 확인했는데, 서영석 외(2007)는 개인이 지닌 성역할 태도, 종교, 권위주의 등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동성애혐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 반면, 윤이현 외(2016)는 대학생이 동성애자에 대해 지니고 있

는 외현적, 암묵적 태도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김선영(2014)은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소수자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사회적 인식,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의 중요 타인 등의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선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비성소수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의 성적 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소수자와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척도 관련 연구는 총 5편이었으며, 그 중 4편이 외국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연구이다. 또한, 개인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재는 동성애 공포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 1편(김용희, 반건호, 2005)을 제외하면, 나머지 4편은 모두 성소수자 입장에서의 경험이나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장지윤과 안현의(2018)는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를, 임민경(2014)은 성소수자가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자신에게 부과하는 정도를 재는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를 타당화했다. 박도담(2017)과 이솔희(2019)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microaggression³⁾을 측정하

는 척도 연구를 수행했는데, 박도담(2017)은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 & Renn, 2015)을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제시한 반면, 이솔희(2019)는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이션 척도’를 직접 개발하고 타당화했다. 두 척도 모두 microaggression을 측정하는 도구지만, 이솔희(2019)는 한국 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에 대한 사전 설문 내용을 문항에 포함하여,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고유한 성소수자 차별 양상이 척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박도담(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와 차이를 보인다.

일곱째, 기타연구로는 정신병리적 특징 차이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들로 성주체성 장애 환자(임수진 외, 2004)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별 동향

연구참여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연구참여자별 연구 논문 수는 총 75편으로 이는 연구 대상이 된 총 84편의 논문 중

미의 micro와 공격을 의미하는 aggression을 조합하여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Microaggression은 주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미세한 차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소수자, 약자에 대한 미세한 차별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Sue, 2010; Sue et al., 2007). Microaggression은 명시적인 차별과는 달리 행위자의 의도와 별개로 대상 집단이나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국내선행연구에서는 미세공격, 먼지차별, 미묘한 차별(이솔희, 2019) 등의 언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3) Microaggression은 명시적이거나 즉각적으로 차별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Pierce(1970)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아주 작다는 의

표 3. 연구참여자별 연구 논문 수

	상담자	내담자	일반인 : 63편(84%)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비성소수자 & 성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남성 & 여성 동성애자	동성애자 &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편수	8	4	10	5	4	9	11	8	1	15
%	10.7	5.3	13.3	6.7	5.3	12.0	14.7	10.7	1.3	20.00

이론 및 개관 연구 9편의 논문을 제외한 논문의 수이다.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관 연구를 제외한 성소수자 관련 연구의 63편(84.0%)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일반인의 세부 분류를 보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5편(20.0%)으로 가장 많았고, 비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14.7%),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12.0%),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10.7%),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6.7%), 여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5.3%),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1.3%)이었다. 그 외에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10.7%)이었으며,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5.3%)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별 동향

총 8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84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 논문이 49편(58.3%)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는 25편(29.8%)이었다. 이론 및 개관 연구 논문은 9편(10.7%)으로 나타났으며, 혼합 연구는 1편(1.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비해 개관 연구와 혼합 연구 편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유일한 혼합 연구 논문은 박수영 외(2018)의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사용한 연구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심리 분야에서 지

표 4. 연구방법별 연구 논문 수

	이론 및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계
편수	9	49	25	1	84
%	10.7	58.3	29.8	1.2	100

금까지 이루어진 성소수자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 과제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소수자 관련 논문 수는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7년 이후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 분야의 논문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이 열렸고, 2016년에는 상담심리학회 내에 LGBT 상담 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장면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전체 연구의 36.9%(31편)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회적 낙인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소수자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성소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초점에 두고 진행된 연구의 비율이 높았는데(17편), 다양한 장면에서의 성소수자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정체체성 형성 과정과 같은 성소수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제뿐 아니라 연애, 데이트폭력, 커뮤니티 등의 관계 경험 그리고 성소수자가 경험한 상담 등 비교적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는 16편(19.0%)으로 편수는 적지 않았으나 하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에 대한 논문이 8편인 반면 성소수자 상담 사례 및 효과에 대한 논문은 5편에 그쳤다. 그마저도 성소수자에게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이나 상담 모델이 아닌 일반적인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상담의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대다수였다.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는 동성애자 상담 모델을 제시한 연구 2편(김경호, 2009; 박준호, 2014)에 불과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성소수자의 인식이나 상담자의 인식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은 있었지만, 상담자가 상담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이나 내담자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는 논문은 없었다. 이는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는(우사라, 유성경, 2017; 이민정, 2015) 배치되는 결과로 아직 성소수자 상담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특정 이론을 사용하여 성소수자 상담을 진행하는 모델에 대해 제안한 연구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하기(Lemoire & Chen, 2005), 인지행동치료 접근에 기반하여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상담

하기(Pachankis, Hatzenbuehler, Rendina, Safren, & Parson, 2015) 등이 있다. Lemoire와 Chen(2005)은 칼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가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내담자의 관점 존중, 내담자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 등을 상담자의 기본적 태도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였다. Pachankis 등(2015)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소수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인지치료 모델 중 하나인 ESTEEM(Effective Skills to Empower Effective Men) 모델을 사용하여 10회기를 진행하였다. 10회기 중 전반부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참여자의 정신건강, 정서,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후반부에는 참여자가 소수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 및 행동을 회피적인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우울 증상 및 음주행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성소수자 관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5편으로, 대부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정체성 발달 과정을 측정하는 척도와 관련된 연구였다. 이는 상담자 교육이나 훈련 장면 혹은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상담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려고 할 때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인식이나 임상적 판단이 편향

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소수자에 대해 상담자가 적절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나 도구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성소수자 상담과 관련된 상담자의 태도나 지식수준, 효능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Bidell(2005)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은 소수민족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소수자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별도로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적 지향 소수자 상담 역량 척도(Sexual orientation Counselor Competency Scale)’를 개발하였다. 또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치료(Lesbian, Gay, and Bisexual Affirmative Counseling)에 대한 상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되었는데(Dillon, Worthington, 2003), 이처럼 국외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는 것도 추후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소수자 관련 척도 개발 연구가 이솔희(2019)의 연구 1편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에서 출판된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 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이솔희(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각 국가의 문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도 등에 따라서 성소수자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있으며 동성 커플에 의한 아이의 입양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미국과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기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추후에는 국내 성소수자의 고유한 경험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고 척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척도 개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울이나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의 위협요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는 달리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비교하며 성소수자의 우울이나 자살 사고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될 때, 그 정신건강 수준의 격차는 사회환경이나 분위기처럼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유사한 맥락에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어떤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담실제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중에서도 삶의 질이나 만족도 등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이면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로 인해 상담자들이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입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별 분포를 보면, (상담자나 내담자가 아닌)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63편, 84.0%)가 상담자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4편에 그쳤는데, 연구의 절대적인 편수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모두 남성 동성애자 내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범위에서도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63편의 연구 중에서도 연구 대상별 편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3편 중 성소수자가 연구 참여자로 포함된 연구는 53편이었는데, 그 중 24편이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였다. 반면, 젠더비순응이나 트랜스젠더(1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성애자를 제외하면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석 결과는 성소수자 내에서도 각 하위 집단별로 경험이나 어려움이 다른 것(Farmer, Laura, Welfare, & Penny, 2013)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자로 분류되지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는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소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나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갈 때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나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편, 동성애자는 제도적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보장받을 수 없거나 사회로부터 혐오적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경험한다(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6). 이처럼 각각의 하위 집단은 성소수자라는 포괄적 용

어로 불릴 수는 있지만,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이 많다.

국외에서는 성소수자 전체 집단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동성애자(Cochran, Sullivan, & Mays, 2003; Alessi, Dillon, & Kim, 2015), 양성애자(Smiley, 1997), 무성애자(Foster & Sherrer, 2014), 트랜스젠더(Bockting, Knudson, & Goldberg, 2006; Bockting, Miner, Swinburne Romine, Hamilton, & Coleman, 2013; Korell, & Lorah, 2007) 등 각각의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 효과적인 상담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나 미국 상담학회의 분과인 ALGBTIC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내담자와의 상담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트랜스젠더 내담자와의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성소수자 집단 가운데에서도 정보가 매우 부족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다양한 성소수자 하위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상담 접근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된다면 상담자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상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연구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흐름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Chen-Hayes, 1997; Friedman, 1991; Fals-Stewart, O'Farrell, & Lam, 2009). 이는 국내 커플이나 부부 상담과 관련된 연구가 이성애자 커플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국내의 연구흐름과 대조된다. 대부분의 성소수자에게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 연인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성소수자가 경험하

는 연인관계는 이성애자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접근에서 확장하여 성소수자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내에서도 2개 이상의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 정체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으로 인해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ole, 2009).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인 사람의 경험과 트랜스젠더이지만 이성애자로서 성별 정정을 마친 이후에 결혼을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 동성애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의 상담 경험(Hunt, Matthews, Milsom, & Lammel, 2006), 유색인종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들에 대한 연구(Sarno, Mohr, Jackson, & Fassinger, 2015) 등 성소수자 내에서의 다양한 교차 정체성을 가진 하위 집단들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자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이성애자'와 '비장애인'이 아닌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지게 된다(Hunt et al., 2006). Hunt 등(2006)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동성애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상담센터 이용이나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상담자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종과 성적 지향의 교차성에 기반해 유색인종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Sarno 등

(2015)은 유색인종인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집단에서는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으며, 유색인종 집단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제시했는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교차할 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화 및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Bieschke, Hardy, Fassinger, & Croteau, 2008). 따라서,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더 소외되거나 더 취약할 수 있는 성소수자 내의 다양한 하위 집단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방법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9편, 58.3%). 양적 연구는 상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왔던 방법론으로(박승민, 2012)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지만,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가설에 따라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때문에, 가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박승민, 2012). 또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49편 중 대부분이 처치나 개입 없이 변인 간의 관계를 보는 상관관계 연구였는데, 상관관계 연구는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밝혀낼 수 있지만 그 현상에 대한 접근이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가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를 하는 비율이 비성소수자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정신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상담자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우울감

이나 자살 사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비성소수자에 비해서 성소수자가 고유하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도 일부 있었는데 각 하위 집단별 표본 크기가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박미란(2019)의 연구는 성소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전체 연구 참여자의 90%인 반면, 트랜스젠더는 5.1%에 불과하다. 성소수자 내에서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Moradi, Mohr, Worthington, & Fassinger, 2009) 연구결과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각 하위 집단별 표본 크기가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모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성소수자 관련 연구는 총 25편으로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합의적 질적 연구(6편), 현상학적 방법(3편), 근거이론(3편), 내러티브(3편), 사례연구(2편)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주제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성정체성의 발달에 대한 김나나(2018)의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지만, 기독교 남성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백은정, 유영권, 2004)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소수자의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별개로 분리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적연구 방법론은 양적 연구방법론

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성소수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는 과정이나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하는 고유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적 연구 역시 상담자가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특정 개입 및 처치를 했을 때, 실제 상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상담학 분야의 주된 연구 목적이 상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박승민, 2012),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그 결과가 도출된 기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박승민, 2012)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대상 논문 중에서는 혼합연구는 1편에 불과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 선정을 할 때, 각 연구의 분석 대상 포함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개관 연구를 하는 주제 자체가 상담과 관련된 변인일 경우에는 분석 대상 포함 여부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성소수자는 상담심리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여서 분석에 포함할 논문과 제외할 논문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 관련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타 분야에서 연구 관심사로 두고 있는 내용들이 상담 및 심리학 분야의 연구 주제들과 유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의 소수자 집단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지만,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별하는 포함 및 제외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상담에서의 마케팅 연구 동향을 개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제한점이 제시되었는데(강혜영, 2011),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소수자 연구를 개관한 선행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논문을 분석할 주제 분류에 대한 기준점 및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초심상담자, 전문상담교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개관 연구는 있었지만(남순임, 박주영, 2017; 송수경, 구자경, 2017), 해당 연구들은 내담자 집단이 아닌 상담자 집단에 대한 연구여서 해당 주제 분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성소수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과 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종합하여 성소수자 연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국내 성소수자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별이나 편견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소수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거나, 성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성소수자 연구의 현황이나 미비한 점에 기초하여 추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상담자의 인식 및 이해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혐오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정치관용 및 태도. *동서연구*, 28, 1-24.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강병철, 하경희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5, 167-189.
-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 강선경, 전지형 (2013).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의 삶의 경험 연구. *생명연구*, 30, 40-73.
-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 교육연구*, 9, 23-42.
- 강혜영 (2011). 상담에서의 마케팅 연구 동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2(3), 99-124.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동성애자와 남성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학회지*, 41(5), 930-941.
-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의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 탐구*, 4, 197-232.
- 길원평, 류혜옥 (2013). 동성애 유발요인과 기독교상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4), 33-48.
- 김경호 (2009). 청소년 동성애와 상담방안에 관한 연구: 개별, 집단, 가족, 학교 상담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135-168.
- 김나나 (2018).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 (2018). 상담자의 동성애상담유능감과 동성애 내담자의 인상형성의 관계: 사회문제 옹호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7). 성적정체성의 복잡성. *사회와 이론*, 10, 301-349.
- 김선영 (2014). 성 소수자 바라보기: 학생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연구. *교육학연구*, 52, 23-52.
- 김성연 (2013).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으로 본 동성애자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김민지 (2018). 동성관계에서의 테이트 폭력 피해경험과 성적자기주장, 폭력허용도와의 관계.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489-523.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30.
- 김영혜 (2013). 국내 20대 레즈비언들의 연애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반건호 (2005). 한국판 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27-336.
- 김유니 (2005).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적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울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2016). 성적 소수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소수자 스트레스가 전문적 도움추

- 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69-981.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은하, 신윤정 (2016). 중, 고등학교 교사의 권위주의 성향,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정서적 공감에 동성애공포에 미치는 영향: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심리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31-453.
- 김중선 (2017). 아동청소년 상담자의 권위주의 성격 특성에 따른 동성애 내담자 상담에 대한 유능감 인식.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우 (2008).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23(4), 605-634.
- 김춘희, 손은령 (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 김태호 (2009). 상담의 윤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적 접근. *다문화교육연구*, 2, 54-76.
-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 28(2), 183-214.
- 김형지, 김향숙 (2018).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 185-220.
- 김형지, 신정훈, 연규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811-841.
- 남순임, 박주영 (2017).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의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8(6), 451-471.
- 노철우 (2010). 청소년의 성 정체성 문제와 기독교상담 방안. *성결심리상담*, 2, 115-158.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 민재옥 (2016). 사회적 낙인이 이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도담 (2017).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 (2019). 성소수자(LGBT)의 소수자 스트레스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 박수진 (2018). 성소수자의 소수자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립의 매개효과와 자기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주 (2012). 남성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드러내기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장미 (2019). 대학생 성소수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3).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불편감이 상담자 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동성애 내담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호 (2014).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인간이해, 35(1), 53-71.
- 박지수 (2018).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진화 (2008). 동성애자의 자살 관련 행동의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 비온뒤무지개재단 (2019). LGBQQIA 내담자들을 위한 ALGBTIC 상담역량. http://rainbowfoundation.co.kr/xe/index.php?mid=board_CHDG15&page=1&document_srl=4377&document_srl=4377.
- 서영석, 이정림, 강제희, 차주환 (2007). 상담자의 동성애혐오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13-237.
- 서영석, 이정림,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6). 한국 LGBTI인권현황2016, <http://sogilaw.org/69>.
- 손주연 (2019). 소수자 스트레스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수경, 구자경 (2017).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8(5), 1-19.
- 신동열 (2010). 성소수자의 성인식,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에니어그램연구, 7(2), 111-14.
- 신재승 (2005). 동성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이환 (2002). 게이 내담자의 로사와 주제통각검사 반응. 미술치료연구, 9, 77-97.
- 양희선 (2017).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 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 연성흠 (2019). 대학생 동성애자의 불안 감소와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미술심리치료 사례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우종민, 백종우, 이주영 (2010). 정신건강증진의 개념과 발전 방향. 신경정신의학, 49,

- 163-170.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정보*, 51(3), 225-256.
- 윤성옥, 성승연 (2011). 성적지향에 수용적인 레즈비언의 젠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17-1049.
- 윤성현, 류혜옥 (201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3), 105-137.
- 윤수진 (2019). 성소수자(LGB)가 겪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통한 긍정적 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동호 (2015). 남성 동성애자의 감각추구 성향, 수동공격, 자기수용, 외로움 및 관계중독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 (2015).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 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2017).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 간의 관계: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솔희 (2019).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화 (2013). 여중생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영식, 전창무, 김소연, 고복자 (2005).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2), 231-238.
- 이영선, 김소라 (2010). 사이버 상담으로 호소된 청소년의 동성애 관련 문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93-112.
- 이지은 (2005). 십대여성이반의 커뮤니티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연 (2017). 남성 동성애자의 부정적 암묵적 태도가 심리적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손창호, 박기환, 최영희 (2004). 원저(原著): 한국 남성 성주체성 장애 환자의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정신병리적 특징. *정신병리학*, 13(1), 16-23.

- 장미래 (2019). 여성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윤, 안현의 (2018).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73-295.
- 장현숙 (2011).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의 사회적 불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효과 연구.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형준, 강윤경 (2017).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25(1), 219-254.
- 정현영 (2018).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일반: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 (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정은 (2016). 성소수자 미혼모의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그림책 만들기 미술치료.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향, 김계현, 이자명 (2009). 진로상담: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175-215.
- 찰스 웨너 (2000). 청소년기의 동성애 정체감의 위기. 상담과 선교, 00(봄), 66-83.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현황 [국가통계포털]. (2019.11.1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MT_ZTITLE&list_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은희, 윤혜미 (2011). 아동기 성폭력경험, 자아존중감, 성정체성노출 및 사회적 지지가 게이와 레즈비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231-254.
-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2018). [소개]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의 심리학적 임상 실천 지침. Retrieved from <https://www.traumahealingcenter.org/46084/2419>.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http://sogilaw.org/39>.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Retrieved from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 한국상담학회 (2016).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Retrieved from <http://www.counselors.or.kr/KOR/kca/law3.php>.
- 한연경 (2014). 커밍아웃을 통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은 (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지선 (2015). 성소수자(LGBQ)의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예진 (2015). 초심 상담자의 다문화수용성과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평가 및 반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essi, E. J., Dillon, F. R., & Kim, H. M. (2015). Determinants of lesbian and gay affirmative practice among heterosexual therapists. *Psychotherapy*, 52(3), 298-307.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Guidelin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research, practice, and organizational change for psychologists. *The American Psychologist*, 58(5), 377-40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a).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2n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b).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 Associati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2009).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transgender clients*. Alexandria, VA: Author.
- Bidell (2005). The sexual orientation counselor competency scale: Assessing attitude, skills, and knowledge of counselor working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4(4), 267-279.
- Bieschke, K. J., Hardy, J. A., Fassinger, R. E., & Croteau, J. M. (2008). Intersecting Identities of Gender-Transgressive Sexual Minorities: Toward a New Paradigm of Affirmative Psychology. In *Biennial review of counseling psychology* (pp. 191-222). Routledge.
- Bockting, W. O., Knudson, G., & Goldberg, J. M. (2006). Counseling and mental health care for transgender adults and loved 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9(3-4), 35-82.
- Bockting, W. O., Miner, M. H., Romine, R. E., Hamilton, A., & Coleman, E. (2013). Stigma,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in an online sample of the US transgender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5), 943-951.
- Chen-Hayes, S. F. (1997). Counseling lesbian, bisexual, and gay persons in couple and family relationships: Overcoming the stereotypes. *The Family Journal*, 5(3), 236-240.
- Cochran, S. D., Sullivan, J. G., & Mays, V. M. (2003).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psychological distress, and mental health services us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53-61.
- Cole, E. R. (2009). Intersectionality and research i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4(3), 170-180.
-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2015). *2016 CACREP standards*. Retrieved from

- <http://www.cacrep.org/wp-content/uploads/2012/10/2016-CACREP-Standards.pdf>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A: Sage publications.
- Dillon, F., & Worthington, R. L. (2003).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affirmative counseling self-efficacy inventory (LGB-CSI): Development, validation, and training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235-251.
- Fals-Stewart, W., O'Farrell, T. J., & Lam, W. K. (2009). Behavioral couple therapy for gay and lesbian couples with alcohol use disord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37*(4), 379-387.
- Farmer, L. B., Welfare, L. E., & Burge, P. L. (2013). Counselor competen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Differences among practice setting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1*(4), 194-209.
- Foster, A. B., & Scherrer, K. S. (2014). Asexual-identified clients in clinical settings: Implications for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4), 422-430.
- Friedman, R. C. (1991). Couple therapy with gay couples. *Psychiatric Annals, 21*(8), 485-490.
- Hunt, B., Matthews, C., Milsom, A., & Lammel, J. A. (2006). Lesbia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qualitative study of their experiences with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2), 163-173.
- Korell, S. C., & Lorah, P. (2007). An overview of Affirmative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transgender clients. In K. J. Bieschke, & R. M. Perez & K. A. Debord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lients*. (pp.271-28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e, S. M., Suh, S., Yang, E., & Jang, Y. J. (2012).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4), 494-499.
- Lemoire, S. J., & Chen, C. P. (2005). Applying person-centered counseling to sexual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3*(2), 146-154.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 McDaniel, S. H., Grus, C. L., Cubic, B.A., Hunter, C. L., Kearney, L. K., Schuman, C. C., ... & Miller, B. F. (2014). Competencies for psychology practice in primary care. *American Psychologist, 69*(4), 409-429.
- Meyer, I. H. (201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S), 3-26.
- Moradi, B., Mohr, J. J., Worthington, R. L., & Fassinger, R. E. (2009).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minority issue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5-22.

- Pachankis, J. E., Hatzenbuehler, M. L., Rendina, H. J., Safren, S. A., & Parsons, J. T. (2015). LGB-affirmativ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young adult gay and bisexual m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transdiagnostic minority stress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3*(5), 875-889.
- Pierce, C. (1970). Offensive mechanisms. In F. Barbour (Ed.), *The black seventies* (pp. 265-282). Boston, MA: Porter Sargent.
- Sarno, E. L., Mohr, J. J., Jackson, S. D., & Fassinger, R. E. (2015). When identities collide: Conflicts in allegiances among LGB people of color.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1*(4), 550-559.
- Sherry, A., Whilde, M. R. & Patton, J. (2005). Gay, Lesbian, and Bisexual Training Competencies i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ccredited Graduate Program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1), 116-120.
- Smiley, E. B. (1997). Counseling bisexual cli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9*(4), 373-382.
- Sue, D. W. (2010).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ons.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2), 64-88.
- Sue, D. W., Capodilupo, C., Torino, G., Bucceri, J., Holder, A., Nadal, K.,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Geneva, Switzerland.

원 고 접 수 일 : 2019. 09.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26

게 재 결 정 일 : 2020. 03. 26

A Content Analysis: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Mi Namkoong

Sogang University / Student

Jeongeun Park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Student

This study examined how sexual minorities have been discussed and understood in the South Korean counseling literature by conducting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This study analyzed 84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June 2019, focusing on research topics, subjects, and methodologie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nnual number of publications in this area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since 2000. Research topics in order of frequency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minority identity and mental health-related variables(36.9%), understandings of the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ies(20.2%), counseling competencies for sexual minority clients(19.0%), content analyses(8.3%), and perceptions of sexual minorities(7.1%).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ere the most commonly studied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order of frequency were: quantitativ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mixed-method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Key words : *Sexual Minorities, LGBTQIA, Content Analysis*